

■ 상록탑

학보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



임유나 수업팀 취재부장

학보에서 동문 인터뷰를 나가면 꼭 하는 질문 중 하나가 ‘학교에 다니면서 했던 인상 깊었던 활동이 있나요?’이다. 만약 이 질문을 내가 받는다면 ‘이대학보’라고 답할 것이다.

얼마 전 이대학보는 104기 신입 기자 모임을 진행했다. 이번 신입 기자의 이대학보 지원서를 보니 학보에 들어오려고 지원서를 준비했던 때가 생각났다. 언론인을 꿈꿨기에 대학에 입학하면 꼭 하고 싶은 활동 1순위는 대학 언론사에 들어가는 거였다. 이대학보에 지원한 후 떨어지면 어떡하나 안절부절못하다 합격 발표가 나고 가족들에게 바로 합격 소식을 알렸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신입 기자를 거쳐 현재 취재부장으로 지내고 있지만 사실 아직 부장 기수를 하기엔 활동 기간이 한 학기 부족하다. 하지만 위 기수의 기자들이 없어 내가 취재부장을 맡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학보의 문을 두드리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학보를 그만두기도 한다. 그만큼 학보 생활은 힘들다. 기자들은 매주 1개, 많으면 3개의 기사를 담당한다. 학보 지면이 월요일에 발행되기에 기자들은 금요일까지 어떻게든 마감해야 한다.

본래 학생 신분이지만 때로는 수업도 마다하고 인터뷰를 하러 가고 과제를 밀려가며 기사를 쓴다. 마감날 밤을 새우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밤중이지만 학보사 불은 꺼지지 않고 기자들은 분주히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기사를 수정한다. 집이 학교와 먼 탓에 새벽에 택시를 타고 오전 3~4시에 집에 들어간 날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힘들어할 새도 없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노트북을 켜 기사를 수정한 경험은 학보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렇게 치열하게 제작한 신문이지만 ‘이대

학보 누가 보냐’는 질문도 심심치 않게 받는다. 아니, 이대학보가 있는지도 모르는 학교 구성원들도 꽤 있을 것이다. 이대학보 지면 발행 부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때론 이런 상황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전공 수업 때마다 뉴스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매번 듣는다. 현직 언론인을 만나는 자리에선 ‘언론사 상황이 어렵다’는 말부터 꺼낸다. 기성 언론도 뉴스의 위기가 말하는 시대에 ‘애초에 대학 언론이 많은 독자를 모으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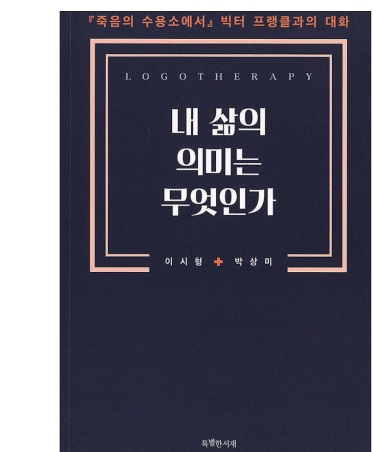
하지만 이대학보엔 대학생 기자들만의 관점이 있다. 그래서 기존에 다루지 않은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한다. 실제로 이대학보의 기사를 읽다 보면 분명 학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제가 광범위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유관순 열사의 역사부터 수요집회 현장, 비혼과 탈코르셋 그리고 야생동물카페와 윈도우 스트라이크까지. 이대학보는 학교를 통해 세상을 비춰왔다.

직접 발로 뛰어 들은, 살아있는 목소리도 담겨 있다. 기자들은 취재 현장에서 처음 보는 학생들에게는 물론 외부인에게도 거리낌 없이 다가가 인터뷰한다. 학교 교직원들은 물론 공연장 옆자리에 앉은 대학원생, 도토리를 주우러 학교에 들어온 외부인, 대동제 덕고지를 먹는 데 성공한 학생, 신촌 이대 거리를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대학보와 만났다.

이대학보는 독립된 언론 기관이다. 외부의 압력 없이 기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자유롭게 펼친다. 미첼 스티븐스가 말한 것처럼 뉴스가 ‘공중의 일부가 공유하게 되는 어떠한 공의 대상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되도록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자들의 노력은 기성 언론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누군가의 생각을 바꾼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찾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곧 찾을 사람이 많아질 이야기들을 학보에서 준비 중이라고 생각한다.

학보 기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오늘도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 좋은 콘텐츠와 사진, 나아가 디지털 구성과 미디어 영상까지. 앞으로도 학보가 언론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양한 사람과 생각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

■ 금주의 책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과의 대화 / 이시형, 박상미 지음.
 서울: 특별한서재, 2020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심신이 지쳐가고 있는 이때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치료법으로 알려진 의미치료에 대한 책이 출간된 것은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특별히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과의 대화라는 부제에 끌리

는 이화인이 많을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사상 최악의 극한 상황, 나치 포로수용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고귀한 인간성과 죽음까지 초월한 경이로운 생명력을 경험한 후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집필하고 의미치료의 이론을 완성하게 됩니다.

의미치료 즉, 로고테라피란 당장 걸로 드러난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 근원적인 삶의 의미를 찾고 고통을 이겨내며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인간 내면에 잠든 힘을 자각하게 하는 심리치료 기법입니다.

이 책은 개인의 행복과 물질적 성취에 급급하여 존재론적 공허감과 무기력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프랭클의 의미치료를 실제 상담사례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시작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는 이화인 여러분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중앙도서관 사서 박순진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 중앙금주의 책/5층
 일반자료실 616.8914 [이69-]

■ 사진부 칼럼

지난 1월, 해외 대학 학보사 탐방을 주제로 보스턴 대학교(보스턴대) 학보사인 ‘The Daily Free Press’를 방문했다.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깨달은 것은, 우당탕탕 돌아가는 학보사는 만국 공통이라는 사실. 취재 과정과 효율성 면에서는 오히려 이대학보가 더 잘하는 부분들도 많았다. 하지만 보스턴대



■ 여론광장

코로나19가 앓아간 사람냄새를 기다리며

허해인 영문17

나는 INTPT다. 내향적이고 직관적이며, 이성애 의존하고 인식적이라는 뜻이다. 이 유형의 큰 특징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없으며 타인과의 소통을 기쁨보다는 성가신 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군중에 있을 때 큰 피로감을 느끼고 인간관계에 서툴다. 내가 정확히 그렇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 사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었다. 특히 대학에 온 후, 어딜가도 사람이 꼭 찬 서울에서 이들을 매일 상대해야 하는 일상에 지쳐버렸다. 나쁜 아니라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이 이런 기분을 느낄 것이다. 더 많이 만날수록 상처만 늘어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즐거움을 찾기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에서 더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일부러 스스로를 그렇게 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고, 몇 달 후 코로나19로 학교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얻은 깨달음은 지금껏 내 삶의 태

도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사람은 사람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이다. 행복한 외톨이가 평생 일대의 목표였기에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온 마음을 다해 이를 느끼고 있다.

교환학생을 온 건 문화와 언어를 체험하고 싶어서였다. 과전 준비를 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평생 살아온 한국을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언어도 배우고.” 하지만 문화와 언어 모두 결국은 사람에게 뻗어와서 같음을, 향기를 맡으려면 이를 발산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함을 이곳에 와서 뒤늦게 깨달았다. 22년 밖에 안 되는 내 삶에서 나름 인상 깊은 여행, 여행을 떠올려왔다. 모두 사람들과 밤에 라면을 먹은 기억으로, 베를린 여행은 김치찌개 집에서 만난 독일 할아버지와 대화로, 학보사 생활은 그간 만났던 인터뷰이들의 눈빛으로 내 추억 속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으면서 ‘혼자’ 위주의 삶을 꾸려가려던 내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졌다. 물론 나는 아직도 개인주의의 신봉자다. 하지만 개인주의라는 개념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에디터가 좋은 글을 쓸 수 있게끔 조율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익숙해 보였다. 보스턴대에서 목격한 열정과 자유로움을 이대학보에 적용하고자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더 나은 학보라는 결과물로 우리의 노력이 독자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념도 타인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존재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다.

전염병은 사람이 사람에게 감염시킨다.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격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고통이 여기서 비롯된다. 나와 모두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와 생각을 교류할 ‘사람’이 모두 학교를 떠나 없으니 나는 교환학생이라고 볼 수 없는 셈이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의 교환 학기는 한 달 전에 끝났다.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해 거기까지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환학생 생활이 허무하게 끝나 아쉽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내 가치관을 통해 바깥바람 경험은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왜 생겼겠는가. 이 기간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모두가 평범한 일상에 감사함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내 삶의 사람 냄새에 더 디어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기다려진다.

■ Z의 시선

코세글자가 가져온 내 삶의 변화

김지연 커미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는 ‘코세글자’ 때문에 내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어쩌면 영원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집 밖은 원래 잘 나가지 않는 나 같은 집순이도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먹을 식량을 사러 나가기 위해서는 두겹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KF94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한창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유행했을 때는 라텍스장갑까지 끼고 다녔다.

간단한 먹을거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손을 씻고 알콜스왑으로 휴대폰을 소독한다. 외출할 때 입은 옷은 세탁기에 돌리거나 소독해준다. 필요한 단 한 번의 외출을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이 늘어났다. 이러

한 과정에 익숙해졌다는 게 슬프지만 받아들이 수밖에 없다.

평소 간단한 ‘치맥(치킨맥주)’을 하기 위해 만났던 친구들과 동기들 모두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다. 랜선 친구들과만 엄청나게 놀았다. 보고 싶은 가족은 페이스톡 기능을 통해 휴대폰 화면으로 안부를 전할 수밖에 없다. 혼잣말도 늘었다.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줄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혹은 누군가의 감정을 내가 같이 공감해 준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가?’ 깨닫는다. 전화가 가진 한계로 내 감정들은 나날이 쌓여만 갔고 할 수 있는 건 SNS에 내 감정들을 문장으로 남기는 것뿐이었다.

그래도 굳이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따지자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 탐구할 시간이 늘었다는 것이다. 오롯이 나에게 쏟을 수 있는 시

간이 주어질 만큼 평소에 내가 뭘 좋아했고,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는데 고민하게 됐다.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면서 잠깐이었지만 유튜브 채널도 오픈하고, 캘리그라피,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하게 혼자 놀기를 해봤다.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집안에서 먹는 시간이 훨씬 늘어나 백종원 선생님의 레시피를 따라하며 집밥도 만들어 먹어봤다.

무엇보다도 가장 그리운 일상은 ‘이화’에서의 추억들이다.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말이 있듯이 과제와 시험에 지쳐 카페인을 수혈하며 보던 교정의 벚꽃들,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사먹기 위해 줄을 서던 ‘대동제’, 그리고 팀플 도중 팀원들과 함께 시켜먹던 야식까지. 이화에서의 일상은 추억이 됐고 이제는 정말 학교에 가고 싶다.

‘코세글자’가 뺏아간 내 일상을 언제쯤 일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